우리·BNK, '정치금융'의 서막?

이 정 희의 西村브리핑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란 제목의 책은 프레임의 힘을 설명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몸집이 크고 코가 길며 귀를 펄럭이는 코끼리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프레임이 강화되는 이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KB금융 등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사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반항하지 마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알쏭달쏭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금융당국의 인사 불개입 선언을 믿을 만한 순진한 금융인은 없을 것이다. 우선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모아서 만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의 시점도 논란거리다. 이미 물러났거나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금융지주 CEO만 4명이나 된다. 손병환 NH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7일 조기 사임했다. 은행장 중에서도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임기도 내년 1월 종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회장 중징계와 김지완 회장의 중도 퇴진을 '정치 금융'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까지인 임기 후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는 그야말로 치명상이다. 여기에 징계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나 가처분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도 받았으니 손 회장 입장에서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억울하기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 27일 취임한 김 회장은 그 해 4분기 당기순익 4031억원, 총자산 107조4000억원, ROE(자기자본이익률) 5.77%던 경영지표를 2022년 3분기 당기순익 7632억원, 총자산 160조, ROE 10.69%로 끌어올리는 탁월한 경영 실적을 거두었다. 경영 성과나 남은 임기 5개월을 보면 김 회장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도록 배려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이 정치권과 야합해 '자녀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김 회장 퇴진 압박과 병행해 내부 인사가 CEO를 승계하도록 한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규정'도 바꾸도록 해 외부 인사도 CEO가 될 수 있는 길까지 만들었다. 벌써부터 부산 출신 관료나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금융인 출신이 회장으로 온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융공기업이나 국책은행 CEO들의 인사 면면과 금융지주사 차기 CEO들에 대한 이런저런 하마평이 들리면서 금융권은 정권 교체를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사 흐름을 보면 '관치 금융'에서 '정치 금융'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오면서 금융 CEO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이왕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니 한마디만 당부한다. 전문가가 존경받는 금융권 풍토 좀 만들어보자. /ljnh@metroseoul.co.kr

동학개미는 왜 금투세를 반대하나

기자 수첩 박 미 경 〈자본시장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보다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과세체계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실이 나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전산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제도에 불과하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으나,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시스템 전산화가 미흡하던 시절 인별 거래 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수 시가 아닌 매도 시에 세금을 부과하던 것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인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이뤄진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연간 2조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수행한다고 비유했다. 오히려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에 불과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도 오해다. 외국인은 거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기 전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조세저항은 당연하다. 왜 금투세가 선진화된 과세체계인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정보 전달이 없다. 무의미한 정쟁 대신 명확한 조세 원칙이 필요하다. /mikyung96@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5		8		3	4	
		9						
					5			7
6	5			2	1			
3		1				4		2
			4	3			5	6
4			8					
						8		
	9	3		1		2		4

2		3	8					4
			2		9			
		7	4			1		8
	8					4	1	2
6	3	4					9	
3		8			1	5		
			5		7			
4					2	6		1

정답

4	7	2	6	1	5	3	9	8
1	3	8	9	4	2	6	7	5
5	6	9	3	7	8	2	1	4
6	5	1	8	3	4	7	2	9
2	9	4	5	6	7	1	8	3
3	8	7	1	2	9	4	5	6
7	1	6	5	9	3	8	4	2
8	2	5	4	8	6	9	3	7
9	4	3	2	8	7	5	6	1

1	8	6	2	3	9	5	7	4
3	4	2	7	8	5	1	9	6
9	7	5	1	4	6	9	2	3
5	9	7	8	2	1	4	6	3
6	3	4	9	7	8	2	5	1
8	2	9	6	1	4	3	7	5
7	5	3	4	9	2	6	1	8
4	6	1	3	5	7	8	9	2
2	1	8	5	6	3	7	4	9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음 10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작은 일이 확정되니 햇살이 크게 비친다. **48년생** 사견 두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60년생** 귀한 기운이 온몸에 가득하다. **72년생** 차량안전에 유의. **84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니 늘 주의가 요구된다.

37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49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심 지나 해결된다. **61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탓하라. **73년생**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85년생**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38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발생 지인 소식에 상복 수이다. **50년생**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기니 오늘은 외출 자중. **62년생** 승진하게 되니 만사형통. **74년생**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86년생**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39년생 한평생 믿던 사람 등 돌리니 허무. **51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63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75년생** 걸으면 걸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87년생**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40년생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자. **52년생**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64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금하라. **76년생** 비교는 소통 부재가 아니겠는가. **88년생** 공부는 평행하라 했으니 도전.

41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비밀만 새 나간다. **53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65년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77년생**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42년생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54년생**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66년생**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78년생**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90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하다.

43년생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55년생**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자. **67년생**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힘을 실어준다. **79년생**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91년생**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해야만.

44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56년생**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68년생** 부모의 돈이라도 공금에는 마음을 비우라. **80년생** 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92년생** 가족이 늘어나니 경사만발.

45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57년생** 채권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69년생** 연인과 함께 생일날 멋진 드라이브를. **81년생** 동료 간에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93년생** 과거의 베풀었던 공이 전환되어 길하다.

46년생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58년생**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70년생** 다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윤 씨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82년생**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94년생** 도시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할 듯.

47년생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아라. **59년생** 관재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71년생** 배우자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83년생** 진리는 늘 가까운 데 있다고 했다. **95년생**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여지자.

김상회의 四季

제망매가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매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습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련다. 제망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은 향가이다. 스님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스님이 재를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 홀연히 바람이 일면서 지전을 극락세계 방향으로 날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제망매가는 누이를 먼저 보내고 가슴 저린 아픔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큰 아픔이 있었다. 현장에는 슬픔을 담은 조화가 줄을 이었고 분향소에는 추모하는 발길로 많은 사람이 아픔을 함께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천도재를 올린다. 불보살의 힘으로 망혼을 극락과 같은 곳에 보내주고자 하는 의식이다. 일반 민가에서 상을 당하면 사십구재를 지내는데 이것 역시 불교의 천도재에서 유래한 것이다.

큰 사건이 있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지내는 위령제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지내는 천도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초월해서 망자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는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제망매가 노래가 지전을 극락세계 방향으로 날린 것처럼 추모하는 마음이 모여 망자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입적이라고 표현한다.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떠나서 고요한 적정의 세계로 들어감을 뜻한다. 모쪼록 망자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쳐야 했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임하기를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